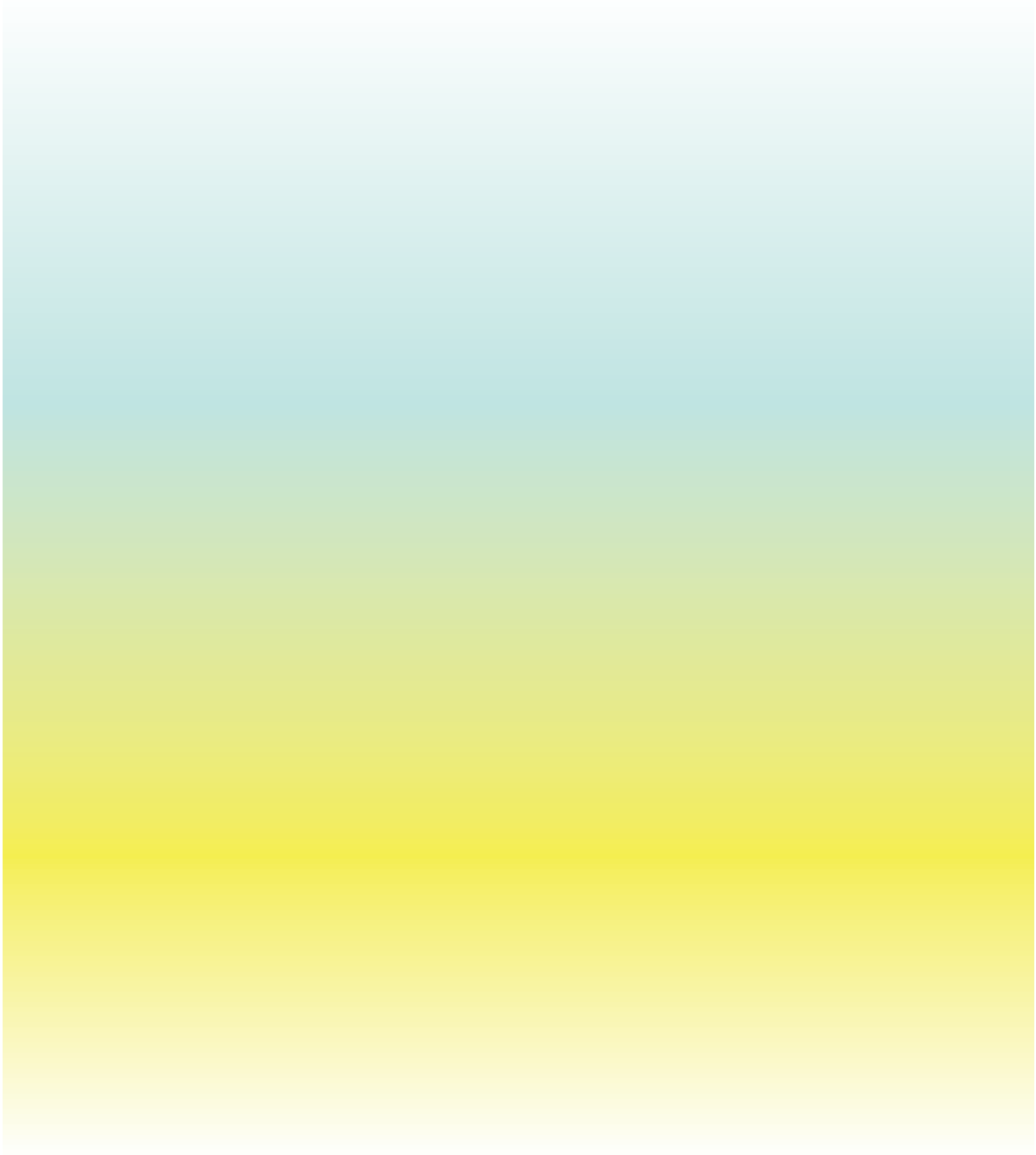




**SEA ART
FESTIVAL 2019**



**SEA OF
HEARTBREAK**



2019바다미술제

상심의 바다



상심의 바다

서상호 전시감독

돈 김슨의 명곡 'SEA OF HEARTBREAK'는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항구의 불빛은 더 이상 나를 비추고 있지 않구나"라고 시작하는 이 노래는 언뜻 상심과 절망의 어두운 바다를 그린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바다를 향해 마음껏 부르짖는 상심과 절망은 오히려 정화된 감정이 되고 비워졌던 마음은 눈앞에 펼쳐진 해변과 수평선까지 가득한 바다로 인해 다시 채워진다.

지금 다대포 앞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도는 예나 다를 바 없다. 파도는 지금 그러하듯이 그 지형을 갖춘 이래 까마득한 옛날에도 묵묵히 밀려왔다 쓸려가기를 반복했다. 땅과 마주한 바다는 영겁에 가까운 파도와 함께 미래에도 계속 될 것이다. 여기 예술이 있다. 저 파도처럼 때로는 완만히 또 때로는 격렬하게....

지치지 않고 치는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기후문제는 위기 상황이고 난민이슈는 봉합되기 어렵고 지금과 같은 자원 소비라면 지구가 3개는 더 필요하다는 말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예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자연은 부지런히 제 할 일을 하고, 예술가는 열심히 제 목소리를 내어 거대한 심연을 뛰어넘어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창작을 해야 한다.

부산 시민들에게 노스텔지어를 환기시키는 다대포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예술로 다시금 마음을 채워 줄 수 있는 바다미술제를 만들어야 한다.

부산만의 특별한 미술행사인 바다미술제는 그간 성과와 아픔을 동시에 겪어왔다. 초심의 마음으로 바다미술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민한다. 예술과 삶을 연결시키려는 시대적 요청에 바다미술제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부산 시민들과 다 함께 즐기는 바다미술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으로 시작한다.

동시대 예술은 동시대의 삶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다. 예술은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한다. 2019바다미술제는 예술과 삶이 유리된 면모를 본래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리고 시민의 삶과 연결시켜, 새로운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바다미술제는 전시를 향유할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 즉 '환경'과 '생태'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확장되는 다양한 문제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바다를 공유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 작가들의 관심 주제를 풀어 공통의 이슈로 상정코자 한다. 결국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지구를 공유하며 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는 보편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시는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며, 여러 사람과 함께 삶과 밀접한 쟁점에 관해 대화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방식이 적용된다. 관람자가 전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1인 창작자가 아닌 콜렉티브 방식의 참여가 이번 행사에 더해진다.

2019바다미술제는 '생태'와 '환경', 그리고 재생을 통하여 더 나아가 '치유'가 공존하는 예술 축제의 장이 될 것이다. 참여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생태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예술을 삶에서 떼어 특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과 다시 연결 짓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여러 사회문제 중에서 환경과 생태에 관한 각성은 다시금 바다미술제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술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시대 예술(2019바다미술제)이 각 개인의 삶을 자기 성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순기능으로 나타날 것이다.

2019바다미술제



주제: 상심의 바다
기간: 2019. 9. 28~10. 27 (30일간)
장소: 다대포해수욕장 일대
규모: 12개국 35명 21작품
전시감독: 서상호
구성: 전시, 학술, 참여 프로그램 등

SEA ART FESTIVAL 2019
THEME: SEA OF HEARTBREAK
PERIOD: SEP. 28~OCT. 27, 2019 (30 DAYS)
VENUE: DADAPO BEACH, BUSAN
ARTISTS-ARTWORKS: 21 ARTWORKS OF 35 ARTISTS FROM 12 COUNTRIES
ARTISTIC DIRECTOR: SEO SANGHO
COMPOSITION: EXHIBITION, ACADEMIC PROGRAM, PARTICIPATION PROGRAM

SEA OF HEARTBREAK

SEO SANGHO, ARTISTIC DIRECTOR

'SEA OF HEARTBREAK' IS A ALL-TIME FAVORITE BY DON GIBSON THAT PORTRAYS A MIND OF A SEAMAN LONGING FOR HIS LOST LOVER. STARTING WITH "THE LIGHTS IN THE HARBOR THEY DON'T SHINE FOR ME," THE SONG MIGHT FIRST APPEAR THAT IT IS ABOUT A DARK SEA OF DESPAIR, A HEART BREAK. HOWEVER, AS THE SONG GOES ON, THE DESPAIR AND THE HEART BREAK BECOME PURIFIED WHEN ONE CRIES HIS HEART OUT SINGING THEM BEFORE THE OCEAN. THEN THE EMPTY HEART FILLS AGAIN BY THE SEA SHORES SPREAD OUT IN FRONT OF US AND SEA THAT FILLS TILL THE HORIZON.

THE WAVES RUSHING IN THE SHORE OF OGDONGPO NOW ARE NOT DIFFERENT FROM THE ONES IN THE PAST. WAVES HAVE CONTINUED SURGING IN AND SWEEPING OUT SINCE THE EPOCH WHEN THE LAND IS FORMED THE WAY IT IS. THE SEA NEXT TO THE LAND CONTINUE ITS BEING IN THE FUTURE WITH THE WAVES OF ETERNITY. IT IS WHERE LIE THE ARTS; SOMETIMES SPILLING SOMETIMES BREAKING LIKE WAVES.

IF SEA WORKS AS THEY WAVE UNWEARILY, WHAT IS THE WORK THAT ART CAN COMMIT? IN THE WORLD OF UNCERTAINTY; CLIMATE IS IN CRISIS; REFUGEES ISSUES ARE HARD TO STITCH UP; AND WE NEED AT LEAST THREE MORE PLANETS TO PROVIDE RESOURCES WHEN CONSIDERED THE CURRENT SPENDING RATE OF THE RAW MATERIALS, WHAT ART MUST DO? NATURE MUST CONTINUE DOING HER WORK WITH PERSEVERANCE, AND ARTISTS MUST CREATE AND SPEAK UP THEIR VOICES TO REACH THE OTHERS ACROSS THE GREAT ABYSS. THE SEA ART FESTIVAL IN TURN, SHOULD MAKE A FESTIVAL THAT FILLS THE HEARTS OF THE CITIZENS OF BUSAN AGAIN AT OGDONGPO OF NOSTALGIA FOR THEM WITH THE ART WORKS THAT REFLECT THE REALITY.

THE SEA ART FESTIVAL IS NOT ONLY AN ART EVENT UNIQUE TO BUSAN, BUT ALSO AN EVENT UNDERWENT BOTH THE HISTORY OF ACHIEVEMENT AND PAINS. WITH THE MINDSET AS IF WE ARE STANDING AT A START POINT, THIS YEAR THE FESTIVAL RETHINKS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ESTIVAL; WHICH WAY THE SEA ART FESTIVAL CAN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TIME TO CONNECT THE ARTS TO THE REAL LIFE?; WHAT KIND OF FORMS SHOULD THE SEA ART FESTIVAL TAKE IN ORDER FOR PEOPLE OF BUSAN MAY ENJOY IT TOGETHER? THE FESTIVAL STARTS WITH SUCH QUESTIONS.

ART IS A BAROMETER WITH WHICH ONE CAN REFLECT THE LIVES OF CONTEMPORARIES. ART MAY SHINE AT THE MOST ONLY WHEN THEY ARE CONNECTED TO 'OUR LIVES, NOW AND HERE.' THUS SEA ART FESTIVAL 2019 MUST RENEW ITSELF AS A NEW FORM OF FESTIVAL BY TURNING THE CONDITION OF ART WHICH IS ALIENATED FROM THE LIFE INTO ITS ORIGINAL, IDEAL STATE AND CONNECTING THE LIVES OF THE PEOPLE.

2019'S SEA ART FESTIVAL PAYS ATTENTION TO 'SEA.' IN OTHER WORDS, THE EXHIBITION THEME WAS DEVELOPED AROUND THE ISSUES OF 'ENVIRONMENT,' AND 'ECO-SYSTEM' UPON WHICH OUR LIVELIHOODS ARE DEPENDENT AND OTHER VARIOUS ISSUES DERIVED FROM THEM. IT SUGGESTS ARTISTS FROM THE COUNTRIES WHERE SHARE SAME BODY OF WATER TAKE SEA AS COMMON ISSUE. AFTER ALL, THE ISSUE WOULD ACHIEVE UNIVERSALITY OF TELLING THROUGH ART THE STORIES OF OURS WHO ARE SURROUNDED BY SEAS AND WHO EXPLOIT THE EARTH.

THE EXHIBITION IS COMPOSED OF THREE SECTIONS THAT EMPLOY THE WAYS OF PARTICIPATION BY LARGE NUMBER OF VIEWERS TO TALK AND COMMUNICATE ABOUT ISSUES INTIMATELY CONNECTED TO LIVES. IN THESE EXHIBITIONS, THE VIEWERS ARE TO PARTICIPAT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WHILE ARTISTS PARTICIPATE AS ONE OF THE MEMBER OF PRODUCING COLLECTIVE RATHER THAN SOLE CREATOR OF AN ART WORK.

SEA ART FESTIVAL 2019 NOT ONLY CELEBRATES THE ARTS BUT ALSO PROVIDES A PLATFORM ON WHICH 'HEALING' MAY CO-EXIST THROUGH 'ECOLOGY,' 'ENVIRONMENT,' AND 'REGENERATION.' THE PARTICIPANTS AND THE VIEWERS ALIKE WILL GET HANDS ON EXPERIENCE AND FEEL THE ECOLOGY AND ENVIRONMENT IN THIS GENUINE FESTIVAL. FURTHERMORE, THE EXHIBITION OFFERS AN OPPORTUNITY FOR US TO RECONNECT THE ARTS TO EVERYDAY LIVES MOVING AWAY FROM THE NOTION THAT ART IS SOMETHING SPECIAL SEPARATE FROM LIVES.

THE AWARENESS OF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AMONG OTHER SOCIAL PROBLEMS, WOULD CREATE IMPACT TO DRAW ATTENTION TO SEA ART FESTIVAL AGAIN. FURTHERMORE, THIS WOULD ALSO BRING IN MORE CITIZENS THE ARTS WHO HAD NOT PAID MUCH ATTENTION. AS A RESULT, CONTEMPORARY ART (SEA ART FESTIVAL 2019) WOULD SHOW ITS POSITIVE FUNCTION CONTRIBUTING FOR PEOPLE TO IMPROVE THEIR LIVES BECOME SELF-REFLECTIVE.

작품배치도 & 작가리스트

전시는 다대 쓰레기 소각장까지 이어집니다

THE EXHIBITION WILL EXTEND INTO THE QADAE GARBAGE INCINERATION PLANT.

21

이광기
LEE KWANGKEE

20

텐터클
TENTACLES

19

타이둥 다운아티스트빌리
& 토코스튜디오
TAITUNG DAWN ART
& TOKO STUDIO

11

송성진
SONG SUNGJIN

18

아트 투게더
ART TOGETHER

6

이창진
LEE CHANGJIN

12

송성진
SONG SUNGJIN

7

이승수
LEE SEUNGSOO

퍼포먼스 PERFORMANCE

13

성백
SUNG BAEK (2019.09.28)

16

엥호볼드 토그미드시레브
ENKHOLO TOGMIDSHIREV (2019.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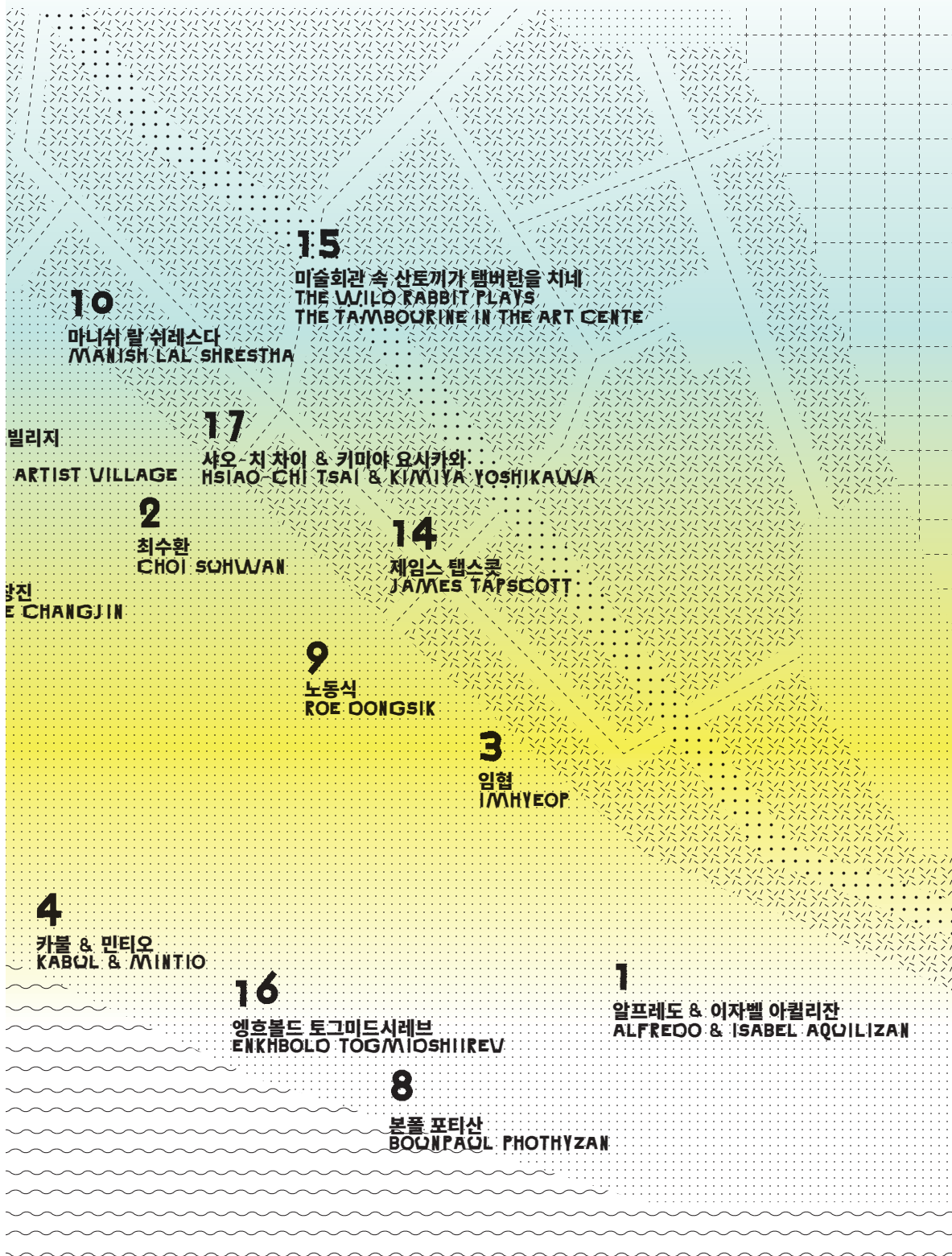
5

김보경
KIM BOKYUNG (2019.10.27)

- 알프레도 & 이자벨 아릴리잔, <바람의 이야기, 바다의 서사>
- 최수환, <하늘 문>
- 임협, <임협 프로젝트 #1>
- 카를 & 민티오, <바다가 조각나듯>
- 김보경, <바다와 땅>
- 이창진, <수통 (水桶)>
- 이승수, <어디로 가야하는가>
- 본풀 포티산, <바다의 절규>
- 노동식, <추억을 소환 합니다>
- 마니쉬 팔 쉬레스다, <수직 물결>
- 송성진, <없으나 있는: 너머>
- 송성진, <1평>
- 성백, <메신저 28092019>
- 제임스 템스콧, <아크 제로>
- 미술회관 속 산토끼가 템버란을 치네, <움직이는 조각공원>*
- 엥호볼드 토그미드시레브, <나의 게르>
- 샤오-치 차이 & 키미야 요시카와, <모호한 부케 - 한 쌍>
- 아트 투게더, <상심의 웅덩이>
- 타이둥 다운아티스트빌리지 & 토코 스튜디오, <해변가에 섬이 생긴다면>
- 텐터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 이광기, <쓰레기는 되지말자>

*해당 작품은 이동식 작품으로 전시 기간동안 설치장소가 변경됩니다.

MAP & ARTIST LIST



1. ALFREDO & ISABEL AQUILIZAN, <TALES FROM THE WIND, LITANIES OF THE SEA>
2. CHOI SUHWAN, <SKY DOOR>
3. IMHYEOP, <IMHYEOP PROJECT #1>
4. KABUL & MINTIO, <AS IF THE SEA SHOULD PART>
5. KIM BOKYUNG, <SEA AND LAND>
6. LEE CHANGJIN, <IN ONE DROP OF WATER ARE FOUND ALL THE SECRETS OF ALL THE OCEANS>
7. LEE SEUNGSOO, <WHERE SHOULD WE GO>
8. BOUNPAUL PHOTHYZAN, <SCREAM FROM THE SEA>
9. ROE DONGSIK, <SUMMON THE MEMORIES>
10. MANISH LAL SHRESTHA, <VERTICAL WAVE>
11. SONG SUNGJIN, <NON-EXISTENT BUT EXISTENT: BEHIND>
12. SONG SUNGJIN, <1 PYEONG>
13. SONG BAEG, <MESSENGER 28092019>
14. JAMES TAPSCOTT, <ARC ZERO>
15. THE WILD RABBIT PLAYS THE TAMBOURINE IN THE ART CENTER, <MOVING SCULPTURE GARDEN>*
16. ENKHOLO TOGMIOSHIREV, <MY GER>
17. HSIAO-CHI TSAI & KIMIYA YOSHIKAWA, <NEBULOUS BOUQUET - COUPLET>
18. ART TOGETHER, <THE PIT OF HEARTBREAK>
19. TAITUNG OAWN ARTIST VILLAGE & TOKO STUDIO, <IF THERE IS AN ISLAND ON THE BEACH>
20. TENTACLES,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21. LEE KWANGKEE, <LET'S NOT BE TRASH>

* AS THIS ARTWORK IS MOVABLE INSTALLATION, THE LOCATION WILL BE CHANGED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학술 프로그램

국제 학술컨퍼런스

기간: 2019. 9. 29 (일), 14:00~18:00
장소: 부산현대미술관 강의실
주제: 아시아의 보이스

구분	시간	내용
인사말	14:00~14:15	김성연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기조강연	14:15~15:00	기조연설: 아테 다르마완 (루앙루파, 카셀 도쿠멘타 15 (2022) 전시총감독) 「몸뚱」
휴식	15:00~15:15	휴식 시간
2부 주제발표	15:15~16:15	1. 우다쿠엔 (대만 C-LAB 학예실장) 「20세기 후반 미술 생태계로부터 현재까지의 반영: 대만 C-LAB의 문화실험을 위한 방법론」 2. 알프레도 & 이자벨 아퀼리잔 (2019바다미술제 참여작가) 「유악한 생태: 가족, 공동체, 창조적 공간」 3. 임종은 (상하이국제중이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감독) 「삶의 서사로 풍부해지는 아시아 '미술'을 기대하며」
휴식	16:15~16:30	휴식 시간
3부 패널토론	16:30~18:00	* 라운드테이블: 서전석 (독립큐레이터), 박남희 (아시아문화원 교육사업본부장) 외 발표자들 * 모더레이터: 서상호 (2019바다미술제 전시감독) * 청중 질의응답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학술세미나

2019바다미술제 현장토크

일시: 전시 기간 (10월) 매주 금요일 (16:00~18:00)
장소: 다대포해변공원, 제 2잔디광장 * 우천시 장소 및 일정 변경 가능
진행: 서상호 2019바다미술제 전시감독

	날짜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
1	10.04 (금)	참여 작가와의 대화	작가와의 대화	송성진, 이승수, 아트 투게더
2	10.11 (금)	역대 전시감독들과 함께하는 바다미술제에 대한 대화	바다미술제의 기억	류병학, 전승보, 김성호, 도태근
3	10.18 (금)	예술협동조합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산 예술 생태계	예술협동조합 토크	가치예술협동조합, 원도심예술가협동조합 창,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4	10.25 (금)	미술 속 반려동물에 대한 토크	미술과 반려동물	채은영 독립큐레이터

ACADEMIC PROGRAM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DATE: SEP. 29 (SUN), 2019, 14:00~18:00
PLACE: CONFERENCE ROOM,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THEME: ASIAN VOICES

	TIME	DETAILS
GREETING MESSAGE	14:00~14:15	SEONG YOUN KIM (EXECUTIVE DIRECTOR)
PART 1 KEYNOTE SPEECH	14:15~15:00	ADE DARMAWAN (RUANGRUPA, ARTISTIC DIRECTOR OF DOCUMENTA 15(2022)) 'LOMBUNG'
BREAK	15:00~15:15	BREAK
PART 2 PRESENTATIONS	15:15~16:15	1. WU DAR-KUEN (DIRECTOR, CURATORIAL DEPARTMENT, C-LAB [TAIWAN]) 'REFLECTION FROM THE LATE 20TH CENTURY ART ECOSYSTEM TO NOWADAYS: METHODOLOGY FOR C-LAB'S CULTURAL EXPERIMENTAL IN TAIWAN' 2. ALFREDO & ISABEL AQUILIZAN (PARTICIPATING ARTISTS, 2019 SEA ART FESTIVAL) 'FRAGILE ECOLOGIES: FAMILY, COMMUNITY, CREATIVE SPACES.' 3. IM JONG-EUN (EXHIBITION DIRECTOR, KOREA PAVILION, SHANGHAI INTERNATIONAL PAPER ART BIENNALE) 'AIMING FOR THE ENRICHMENT OF ASIAN 'ART' THROUGH THE NARRATIVES OF LIFE'
BREAK	16:15~16:30	BREAK
PART 3 PANEL DISCUSSION	16:30~18:00	* ROUNDTABLE: SEO JINSEOK (FREELANCE CURATOR), PARK NAMHEE (DIRECTOR OF EDUCATIONAL PROJECT DIVISION, ASIA CULTURE INSTITUTE), PRESENTERS * MODERATOR: SEO SANGHO (SEA ART FESTIVAL 2019 ARTISTIC DIRECTOR) * AUDIENCE Q&A SESSION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NG) WILL BE PROVIDED

ACADEMIC SEMINAR

2019 SEA ART FESTIVAL ONSITE TALK

TITLE: 2019 SEA ART FESTIVAL ONSITE TALK
DATE & TIME: EVERY FRIDAY IN OCTOBER, 16:00~18:00
PLACE: SECOND LAWN PLAZA, DADAEP0 BEACH PARK
* IN CASE OF RAIN, THE VENUE AND SCHEDULE WILL BE CHANGED.
MODERATOR: SEO SANGHO (SEA ART FESTIVAL 2019 ARTISTIC DIRECTOR)

	DATE	DETAILS	PROGRAM	PARTICIPANT(S)
1	10.04 FRI	CONVERSATION WITH PARTICIPATING ARTISTS	CONVERSATION WITH THE ARTISTS	SONG SUNGJIN, LEE SEUNGSOO, ART TOGETHER
2	10.11 FRI	CONVERSATION ON SEA ART FESTIVAL WITH PAST AND PRESENT ARTISTIC DIRECTORS	MEMORIES OF THE SEA ART FESTIVAL	RYU BYUNGHAK, JEON SEUNGBO, KIM SUNGHO, OO TAEKEUN
3	10.18 FRI	THE BUSAN ARTISTIC ECOSYSTEM AS SEEN BY ART COOPERATIVES	ART COOPERATIVE TALK	GACHI ART COOPERATIVE, CHANG OLD DOWNTOWN ART COOPERATIVE, CREATIVE PLAN B
4	10.25 FRI	TALK ABOUT COMPANION ANIMALS IN ART	ART AND PETS	CHAE EUNYOUNG (FREELANCE CURATOR)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기간: 2019. 9. 29~10. 27
장소: 다대포해수욕장
참여단체: 아트 투게더(홍콩), 타이둥 다운아티스트빌리지 & 토코 스튜디오(대만), 텐터클(태국)

* 아트 투게더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수간만의 시간차를 이용한 활동과 소원 적기 등의 활동을 진행
날짜: 2019. 9. 29~10. 7
장소: 아트 투게더 <상심의 웅덩이>

구분	날짜	시간	프로그램	참여인원	담당자
P1	9. 29	13:00~15:00	모래성 워크샵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 20명 내외	호 유엔 링
P2	10. 7	16:00~18:00	바람에 날리는 소원	누구나 참여 가능	찬 팍 킨

* 타이둥 다운아티스트빌리지 & 토코 스튜디오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배우고, 해양 폐기물을 활용해 '가방', '엑세서리' 등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 기념품으로 제공
날짜: 2019. 10. 8~10. 17
장소: 타이둥 다운 아티스트빌리지 & 토코 스튜디오 <해변가에 섬이 생긴다면>

구분	날짜	시간	프로그램	참여인원	담당자
P1	10. 8	14:00~18:00	바다의 노래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 10명 내외 8세 이상 아동 및 성인	수론 우 + 엔위 링
P2	10. 9~10		나만의 방수 가방 만들어보기		
P3	10. 11~13		코바느질로 만드는 나만의 악세서리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 10명 내외 12세 이상 아동 및 성인	
P4	10. 14~17		바다를 퀘퀘어 보아요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 10명 내외 8세 이상 아동 및 성인	엔위 링

* 텐터클

현 시대 해양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태국 전통 음식, 전시주제와 관련된 태국 노래를 배우는 문화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날짜: 2019. 10.18~10.27
장소: 텐터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구분	날짜	시간	프로그램	참여인원	담당자
P1	10. 18 10. 22 10. 24	13:00~18:00	태국 음식 만들어보기	사전 신청 및 현장 등록 10명 내외	파키라 차판아웃 + 추티퐁 페찌에
P2	10. 21 10. 23 10. 25		태국 노래 배워보기		
P1 + 2	10. 19 10. 20 10. 26 10. 27		태국 음식 만들어보기 + 태국 노래 배워보기		

공연 프로그램

일시: 2019. 10. 12(토), 17:00
장소: 다대포 특설 무대
참여단체: 4-5개 공연팀

PERFORMANCE

DATE: OCT. 12 (SAT), 2019, 17:00
PLACE: DADAPO SPECIAL STAGE
PARTICIPANTS: 4-5 PERFORMANCE GROUPS

부산비엔날레와 함께하는 신한카드 꼬마피카소 그림축제

일시: 2019. 10. 9(수), 13:00~17:00
장소: 다대포해변공원
*우천 시 다선중학교 대강당
참여단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200명
주최: 신한카드, 아이들과미래재단
후원: 여성가족부,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PUBLIC PARTICIPATION PROGRAM

PROGRAMS WITH ARTISTS

DATE: SEP. 29~OCT. 27, 2019
PLACE: ODAEPO BEACH
PARTICIPATING GROUPS: ART TOGETHER (HONG KONG), TAITUNG DAWN ARTIST VILLAGE & TOKO STUDIO (TAIWAN), TENTACLES (THAILAND)

* ART TOGETHER

PROGRAM PROVIDING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WITH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NCLUDING AN ACTIVITY USING THE TIME DIFFERENCE IN THE TIDES AND A WISH-WRITING ACTIVITY
DATES: SEP. 29~OCT 7, 2019
VENUE: ART TOGETHER <THE PIT OF HEARTBREAK>

	DATE	TIME	PROGRAM	PARTICIPANTS	ARTIST
P1	SEP. 29~ OCT. 7	13:00~ 15:00	SAND CAST BUILDING WORKSHOPS	APPROX. 20 (PRE- & ONSITE REGISTRATION)	HO YUEN LEUNG
P2		16:00~ 18:00	WISHES IN THE WINDS	OPEN TO EVERYONE	CHAN PAK KIN

* TAITUNG DAWN ARTIST VILLAGE & TOKO STUDIO

LEARNING SONGS ABOUT THE SEA AND MAKING BAGS, ACCESSORIES, AND OTHER ITEMS FROM OCEAN WASTE MATTER TO GIVE AS SOUVENIRS TO VISITORS
DATES: OCT. 8~17, 2019
VENUE: TAITUNG DAWN ARTIST VILLAGE & TOKO STUDIO
<IF THERE IS AN ISLAND ON THE BEACH>

	DATE	TIME	PROGRAM	PARTICIPANTS APPROX. 10 (PRE- & ONSITE REGISTRATION)	ARTIST
P1	OCT. 8	14:00~ 18:00	SONG OF THE SEA (OUR STORY IN THIS ISLAND)	ADULTS & CHILDREN AGED 8+	SHU-LUN WU YAN-YU LING
P2	OCT. 9~10		TO BE USEFUL AGAIN (MAKING YOUR OWN WATERPROOF BAG)		
P3	OCT. 11~13		CROCHET YOUR FASHION	ADULTS & CHILDREN AGED 12+	YAN-YU LING
P4	OCT. 14~17		STITCHING THE OCEAN AND HUMAN NATURE	ADULTS & CHILDREN AGED 8+	

* TENTACLES

CULTURAL EXCHANGE AND ACTIVITY PROGRAM FOR DISCUSSING THE PHENOMENA AND ISSUES FACING THE SEA TODAY WHILE EXPERIENCING TRADITIONAL THAI FOOD AND LEARNING THAI SONGS RELATED TO THE EXHIBITION THEMES
DATES: OCT. 18~27, 2019
VENUE: TENTACLES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DATE	TIME	PROGRAM	PARTICIPANTS	ARTIST
P1	OCT. 18 OCT. 22 OCT. 24	13:00~ 18:00	COOKING SESSION	APPROX. 10 (PRE- & ONSITE REGISTRATION)	PAKCHIRA CHARTPANYAWUT + CHUTIPHONG PEAJIER
P2	OCT. 21 OCT. 23 OCT. 25		SINGING SESSION		
P1 + 2	OCT. 19 OCT. 20 OCT. 26 OCT. 27		COOKING + SINGING SESSION		

SHINHAN CARD LITTLE PICASSO PAINTING FESTIVAL WITH THE BUSAN BIENNALE

DATE: OCT. 9 (WED), 2019, 13:00~17:00
PLACE: ODAEPO BEACH PARK (DASEON MIDDLE SCHOOL AUDITORIUM IN THE EVENT OF POOR WEATHER)
PARTICIPATING GROUPS:
200 PRE-SCHOOL AGE CHILDREN AND ELEMENTARY STUDENTS
SPONSOR: SHINHAN CARD, KIOS & FUTURE FOUNDATION
SUPPOR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관람정보

관람정보

기간: 2019. 9. 28~10.27 (기간 중 휴일 없음)
시간: 10:00~19:00
(2019바다미술제는 무료 전시입니다.)

관람 유의사항

- * 여러 사람이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공공장소이므로 관람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허가되지 않은 작품은 눈으로만 관람해주세요. (작품 및 시설물 훼손 시 변상)

종합안내소

2019바다미술제를 찾아주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시 기간 동안 다대포 해변공원 제1 잔디광장 맞은편에 종합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전시 관람을 위한 자료를 비롯하여, 2019바다미술제 아트상품 등을 접할 수 있으며 물품 보관소에 전시를 보는 동안 소지품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19. 9. 28~10.27

시간: 10:00~19:00

장소: 다대포 해변공원 제1 잔디광장 앞

디지털투어

오디오가이드, 작품 설명, 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9바다미술제를 위한 모바일 전시장 홈페이지 WWW.BUSANBIENNALE.ORG

INFORMATION

EXHIBITION INFORMATION

PERIOD: SEP. 28~OCT. 27, 2019 (NO HOLIDAYS)

TIME: 10:00~19:00

(THE SEA ART FESTIVAL IS FREE OF CHARGE.)

NOTICE

- * OBSERVE GOOD MANNERS AND ETIQUETTE IN EXHIBITION VENUE THAT ARE COMMONLY REQUIRED IN PUBLIC PLACES.
- * VISITORS ARE ADVISED NOT TO TOUCH EXHIBITED ARTWORKS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EVENT OF DAMAGE TO WORKS OR FACILITIES, THE COMPENSATION COULD BE CHARGED.)

INFORMATION CENTER

FOR THE VISITORS WHO COME TO SEE THE SEA ART FESTIVAL 2019, THE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OPERATES INFORMATION CENTER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AT ODAEPO BEACH. INCLUDING PRINTED MATERIALS, VISITORS CAN ALSO LOOK AROUND THE ART SHOP WHERE THE SOUVENIRS OF THE SEA ART FESTIVAL 2019 ARE ON SALE. IN ADDITION, THERE IS THE CLOAKROOM TO CHECK VISITORS' BELONGINGS.

PERIOD: SEP. 28~OCT. 27, 2019

TIME: 10:00~19:00

DIGITAL TOUR

PLEASE EXPERIENCE THE SEA ART FESTIVAL 2019'S DIGITAL TOUR. YOU CAN ENJOY THE EXHIBITION WITH THE AUDIO GUIDES, DESCRIPTION OF ARTWORKS, AND ALL OF THE INFORMATION.

WEBSITE WWW.BUSANBIENNALE.ORG

바다미술제

바다미술제는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을 계기로, 현재 까지 개최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미술축제입니다. 부산의 자연환경인 바다에서 개최되는 독특한 형식의 바다미술제는 현대미술을 통해 바다를 예술적 새로운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1996년 까지는 매년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이후 부산비엔날레에 통합되어 개최되어오다가 2011년부터 다시 독립된 미술제로서 매 홀수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부산의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혜택이 적었던 서부산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바다미술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예술향수권을 확대하고 부산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자연 공간인 바다에서 개최되는 바다미술제는 현대미술이 가진 장벽을 낮추고 대중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시회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다에서 무료로 개방되는 바다미술제는 여타의 전시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들을 해소하고 모두가 한데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미술 축제로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부산 지역의 여러 예술단체들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축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들은 바다미술제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으며 나아가 지역 예술계와 상생하는 화합의 장을 형성하였습니다.

30여년의 역사를 지닌 바다미술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산의 바다를 예술적 공간으로 재해석하며 현대미술의 대중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며, 예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의 순간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나갈 것입니다.

역대 바다미술제

회차	기간	장소
제1회	1987. 9. 15~9. 24	해운대해수욕장
제2회	1988. 9. 15~9. 25	해운대해수욕장
제3회	1989. 9. 25~10. 3	광안리해수욕장
제4회	1990. 9. 5~10. 24	광안리해수욕장
제5회	1991. 9. 26~10. 6	광안리해수욕장
제6회	1992. 10. 4~10. 14	광안리해수욕장, 아트타운 전시실
제7회	1993. 10. 1~10. 14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아트센터
제8회	1995. 9. 22~10. 1	해운대해수욕장, 부산문화회관, 파라다이스 비치호텔 공연장

제8회 바다미술제 개최 이후, 부산비엔날레에 통합 개최되어 오다가 2011바다미술제부터 독립 개최.

년도	주제	기간	장소
2011	송.도(松島)	2011. 10. 1~10. 21	송도해수욕장
2013	WITH 송도: 기억·흔적·사람	2013. 9. 14~10. 7	송도해수욕장
2015	보다-바다와 씨앗	2015. 9. 19.~10. 18	다대포해수욕장
2017	ARS LOWENS: 바다+미술+유회	2017. 9. 16~10. 15	다대포해수욕장

HISTORY OF SEA ART FESTIVAL

FIRST HELD IN 1987 AS ONE OF THE CULTURAL PRE-EVENTS AHEAD OF THE 1988 SEOUL OLYMPICS, THE SEA ART FESTIVAL HAS TAKEN PLACE EVER SINCE AS ONE OF BUSAN'S PREMIER ART CELEBRATIONS. STAGED IN A UNIQUE FORMAT AGAINST THE BACKDROP OF BUSAN'S NATURAL SEASIDE ENVIRONMENT, THE SEA ART FESTIVAL HAS SOUGHT TO BRING THE PUBLIC CLOSER TO ART BY USING CONTEMPORARY ART TO REINTERPRET THE SEA INTO A NEW ARTISTIC SETTING. HELD EVERY YEAR BETWEEN 1987 AND 1996 AT THE BEACHES OF HAEUNDAE AND GWANGALLI, IT WAS SUBSEQUENTLY INTEGRATED WITH THE BUSAN BIENNALE; SINCE 2011, IT HAS TAKEN PLACE EVERY ODD-NUMBERED YEAR AS ITS OWN INDEPENDENT ART FESTIVAL.

IN ADDITION TO THE WORLD-RENOUNDED BUSAN TOURIST DESTINATIONS REPRESENTED BY THE BEACHES AT HAEUNDAE AND GWANGALLI, THE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HAS CONTRIBUTED TO EXPANDING ARTISTIC ACCESS AND ACHIEVING BALANCED DEVELOPMENT IN BUSAN BY HOLDING THE SEA ART FESTIVAL AT THE BEACHES OF SONGDO AND ODAEPO IN THE RELATIVELY CULTURALLY UNDERSERVED WESTERN PART OF THE CITY.

ACCESSIBLE TO ALL WITHIN THE OPEN SETTING OF THE BEACH, THE FESTIVAL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XHIBITION THAT LOWERS THE BARRIERS TO CONTEMPORARY ART, PERMITTING IT TO COMMUNE MORE CLOSELY WITH THE PUBLIC.

OPENED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IN ITS SEASIDE SETTING, THE SEA ART FESTIVAL HAS REMOVED SOME OF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SEEN IN OTHER EXHIBITIONS, ESTABLISHING ITSELF AS AN ART FESTIVAL THAT CAN BE ENJOYED BY EVERYONE TOGETHER. THE FESTIVAL HAS BEEN MADE EVEN MORE DIVERSE WITH THE INCLUSION OF FESTIVAL PROGRAMS AND EDUCATION PROGRAMS BASED ON COOPERATION WITH BUSAN-AREA ARTISTIC GROUPS, WHICH HAVE CREATED AN ENVIRONMENT FOR HARMONY AND SHARED BENEFITS FOR THE LOCAL ART COMMUNITY.

BOASTING MORE THAN 30 YEARS OF HISTORY, THE SEA ART FESTIVAL IS POISED TO CONTINUE REINTERPRETING BUSAN'S SEASIDE AS AN ARTISTIC SPACE AND CONTRIBUTING THE POPULARIZATION OF CONTEMPORARY ART - SHARING WITH MANY PEOPLE THOSE STIRRING AND JOYFUL MOMENTS THAT ART AFFORDS US.

HISTORY OF SEA ART FESTIVAL

No.	PERIOD	VENUE
1st	1987. 9. 15~9. 24	HAEUNDAE BEACH
2nd	1988. 9. 15~9. 25	HAEUNDAE BEACH
3rd	1989. 9. 25~10. 3	GWANGALLI BEACH
4th	1990. 9. 5~10. 24	GWANGALLI BEACH
5th	1991. 9. 26~10. 6	GWANGALLI BEACH
6th	1992. 10. 4~10. 14	GWANGALLI BEACH, EXHIBITION HALL OF ART TOWN
7th	1993. 10. 1~10. 14	HAEUNDAE BEACH, DONGBAEK ART CENTER
8th	1995. 9. 22~10. 1	HAEUNDAE BEACH, BUSAN CULTURAL CENTER, PERFORMANCE HALL OF PARADISE BEACH HOTEL

AFTER 8TH SEA ART FESTIVAL, THE SEA ART FESTIVAL HAS BEEN INTEGRATED INTO BUSAN BIENNALE AND IT HAS BEEN HELD INDEPENDENTLY SINCE SEA ART FESTIVAL 2011.

YEAR	THEME	PERIOD	VENUE
2011	SONGDO	2011. 10. 1~10. 21	SONGDO BEACH
2013	WITH SONGDO: REMEMBRANCE·MARKS·PEOPLE	2013. 9. 14~10. 7	SONGDO BEACH
2015	SEE - SEA & SEED	2015.9. 19~10. 18	ODAEPO BEACH
2017	ARS UDENSE: SEA+ART+FUN	2017. 9. 16~10. 15	ODAEPO BEACH

SEA ART FESTIVAL 2019



SEA OF HEARTBREAK

47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주경기장 38호
TEL. 051 503 6111 FAX. 051 503 6584
38, BUSAN ASiad MAIN STADIUM,
344 WORLOcup ST. YEONJE-GU, BUSAN, 47500, KOREA
TEL. +82 51 503 6111 FAX. +82 51 503 6584
www.basanbiennale.org
blog.basanbiennale.org

 www.facebook.com/basanbiennale
 Instagram.com/basanbiennale
 youtube.com/bsbiennale
 [Basan Biennale](#)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신한카드

 아름다운가게

 **encore** | Busan Biennale
BY WINDMILL

 롯데칠성음료

 Art Week 2019
Korea